



모자이크 유리 타일 공예의 산실 오르소니 모사이치

1888년 설립된 오르소니 모사이치는 '스말토'로 불리는 모자이크 유리 타일 제작 분야의 선두 주자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위치한 이곳은 고대 유리 타일 공예를 연마하고자 세계 각지의 모자이크 작가들이 모여드는 배움터이기도 하다.

Portraits in Smalti

Orsoni Mosaici is one of the world's foremost producers of smalti, glass mosaic tiles. At the Orsoni factory, in the Cannaregio district of Venice, Italy, mosaicists from around the world come to learn the techniques of this ancient art form.





오르소니 모사이치는 모자이크용 유리 타일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또한 모자이크 작가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정원이 딸린 저택을 보유하고 있다(왼쪽). 유리판을 보관하는 컬러 라이브러리(오른쪽 페이지)와 유리 재단 과정(위).

Orsoni Mosaici is a glass factory in Venice that produces smalti, or glass tiles, which are used to make mosaics; it offers courses for mosaicists and contains a villa and a garden (left). Glass plates from the library of colors (opposite) are broken into smalti (above).



산마르코 대성당은 베네치아 공화국이 수세기에 걸쳐 누린 부와 경제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다. 오늘날 베네치아를 찾는 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聖) 마르코 등 여러 성인의 삶을 묘사한 화려한 금박 모자이크를 보기 위해 산마르코 대성당 앞의 긴 줄도 마다하지 않는다.

산마르코 대성당을 장식한 모자이크의 소재인 유리 타일, 즉 ‘스말토’는 대부분 베네치아의 공방에서 제작했는데 지금은 지역 내 유일한 유리 공장인 오르소니 모사이치에서 생산된다. 베네치아 대운하에서 가까운 카나레조 지구에 위치한 공장은 1888년 안젤로 오르소니가 설립했다.

오르소니 모사이치는 스말토 생산 외에 모자이크 작가들을 위한 교육 과정도 운영하는데, 많은 이들이 오르소니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색감, 특히 황금색 스말토에 매료되어 이곳을 찾는다. 오르소니는 초보자 과정뿐 아니라 숙련된 장인과 모자이크 작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과정도 제공한다. 아주 작은 유리 타일을 다루는 마이크로 모자이크나 초상화법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단기 과정도 마련돼 있다.

네덜란드 남부 테테링언에 거주하는 나타샤 뮐더르는 2006년 개인 모자이크 공방을 개설하고, 지난 8년여 동안 자신의 작품을

Saint Mark’s Basilica is an important symbol of the opulence and economic power the Republic of Venice enjoyed as a city-state for many centuries. Today, visitors line up to get a chance to gaze at the basilica’s shimmering gold-leaf mosaics, which depict scenes of the life of Jesus Christ, Saint Mark and others.

Many of the glass tiles, or smalti, used to maintain the mosaics of Saint Mark’s are made by Orsoni Mosaici, the only glass factory in the historic city of Venice. Located in the Cannaregio district, not far from the Grand Canal, the business was established in 1888 by Angelo Orsoni.

In addition to producing smalti, Orsoni also provides training for mosaicists, who choose Orsoni because of its wide array of colors — particularly its gold smalti. Orsoni offers a variety of courses for experienced artists and mosaicists, as well as courses for beginners. One- and two-week master classes are available, as well as one-week courses focusing on micro-mosaics or portraiture.

Natasja Mulder, who lives in the Dutch city of

보완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세 번이나 베네치아를 찾았다. 그녀는 오르소니에서 받은 교육 덕에 기술적으로 구현하지 못했던 여러 기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유리 용광로가 있는 현장에서 실습하며, 그 옆의 공방에서 절단 망치로 유리판을 잘게 조각내는 훈련을 한다. 이곳에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는 보기 힘든 근사한 정원이 있으며, 숙식을 제공하는 전통 베네치아 양식의 저택도 있다.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을 저택 곳곳에서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미켈란젤로의 프레스코화 〈텔피의 무녀〉를 모자이크 유리 타일로 만들고 싶었어요.” 뮐더르가 2008년 오르소니에서 교육받던 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당시 저를 지도하신 안토넬라 갈렌다 선생님은 모자이크 제작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제 손으로 작품 전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끄셨어요.”

오르소니에서 35년째 모자이크 작가로 활동하는 갈렌다는 14년 전부터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학생 중에는 수도원에 둘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기 위해 러시아에서 온 수도사도 있다. 학생들은 저마다 유리 타일이라는 새로운 소재로 초상화를 제작하거나 고전 회화를 재현하는 기법을 배우고, 때때로 액자 틀에 작품을 고정하는 방법도 배운다.

Teteringen, founded her own mosaic studio in 2006. Over the last eight years, she has traveled to Venice three times to learn skills to complement her work. She says that training at Orsoni is an all-encompassing experience.

Students work within view of the glass furnace and alongside a workshop where glass plates are broken into small pieces using a cropper. The property includes a garden and a bed-and-breakfast in a traditional Venetian villa, which is, of course, adorned with beautiful mosaics.

“I wanted to translate the fresco painting of the *Delphic Sibyl* by Michelangelo into mosaics,” says Mulder of her 2008 visit to Orsoni. “Instructor Antonella Gallenda guided me through this project in such an excellent way, without taking over the making of the mosaic.”

Gallenda has been a mosaicist at Orsoni for 35 years and an instructor for 14 years. She says her students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have even included a monk from Russia. Most often, students learn to create portraits or recreate classic paintings in this new medium.

풍부한 색깔 스말토는 대형 벽화, 혹은 바닥이나 천장을 장식하는 모자이크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미국 텍사스 주 어빙에서 온 줄리 리치는 1992년부터 모자이크 작가로 활동했는데, 수준 높은 스말토 제작 기법을 배우기 위해 오르소니를 찾았다고 한다. “주로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물에 쓰일 모자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무궁무진한 색깔을 표현해내는 스말토를 접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작품 세계를 발견한 셈이죠.”

오르소니를 제외한 베네치아의 유리 공장은 수상 택시로 얼마 걸리지 않는 무라노 섬에 자리 잡고 있다. 1291년 화재 위험 때문에 베네치아의 총독이 내린 이전(移轉) 명령에 따라 많은 유리 공장들이 무라노 섬으로 이주했다. 베네치아 공화국이 몰락하고 총독이 서명한 법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유리 공장에 대한 제재는 수세기 동안 존재했다. 현재의 오르소니 공장은 1887년에 건축됐고, 1888년 안젤로 오르소니가 프랑스로 떠난 스승에게서 이 공장을 인수했다.

기초반에서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본 틀과 유리 타일 성형법을 배운다. 갈렌다 선생은 클립트나 반 고흐 같은 유명 화가의 작품을 모작하고 싶어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한다. “회화를 해석하고, 그것을 다른 소재를 이용해 재현하는 작업은

LIBRARY OF COLORS Smalti has a wide variety of other applications such as large murals or mosaics built into floors or ceilings. Julie Richey, from Irving, Texas, has been a mosaicist since 1992, but came to Orsoni in order to add smalti to her repertoire. “Most of my work had been residential or commercial building commissions up to that point. Once I discovered smalti and the many applications for the endless variety of colors, a whole new world of potential artwork opened up for me,” says Richey.

Except for Orsoni, all of Venice’s glass factories are found on the island of Murano, a short *motoscafo* ride away. Because of the risk of fires, the doge of Venice ordered that all glass factories be moved to Murano in 1291, putting into effect a ban on such factories in Venice that lasted for centuries. The current Orsoni factory was built in 1887, and Angelo Orsoni took it over in 1888.

The training at a very basic level involves learning how to choose a project and how to shape the glass tiles. Gallenda says that students often come looking to

결코 쉽지 않아요. 색을 고르는 일도 어렵고요. 이해도 실행도 힘든 과제일 수 있어요. 가령,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멀리서 봤을 때 보라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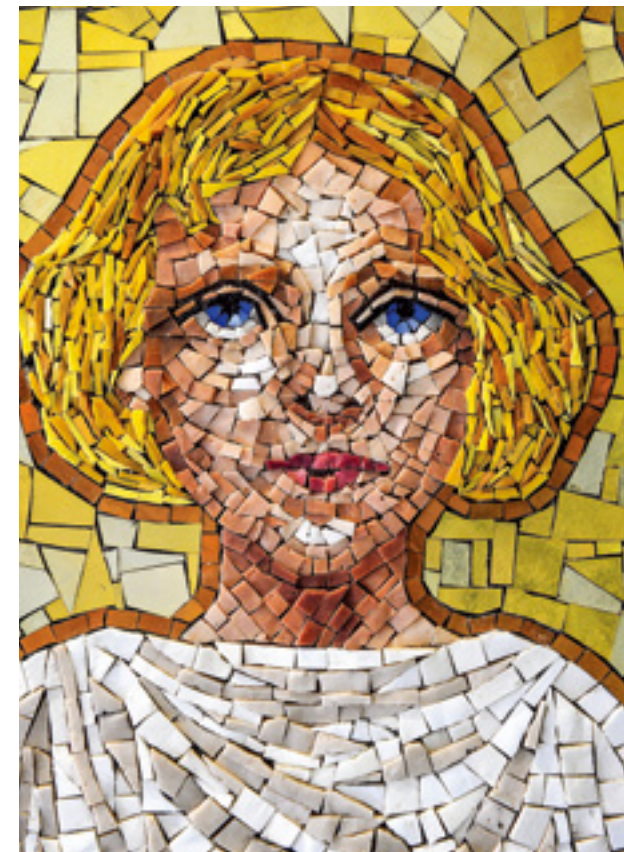
또 다른 고난도의 기술로 갈렌다는 유리 재단과 성형법 숙달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유리 조각 사이에 남는 공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해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은 재료를 많이 낭비할 수밖에 없고요.” 줄리 리치도 갈렌다 선생의 말에 동의한다. “작은 스말토 조각과 덩어리를 정확한 모양으로 재단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안토넬라 선생님의 수업은 적절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안토넬라 갈렌다는 ‘필라티’라고도 부르는 마이크로 모자이크 작업에 특히 능하다. 그녀는 소형 발열 장치를 이용해 유리 조각을 녹여 유리 바닥을 스파게티면 굽기 정도로, 가늘고 길게 뽑아낸 뒤 이것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모자이크 작업에 사용한다. 갈렌다는 사람의 손을 모자이크로 표현하는 실력이 뛰어난데, 이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은 모자이크 예술가의 장인 정신과 오르소니 모사이치 유리 타일 공예의 품질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일 것이다. 📷 글 필리프 도레 사진 카를로 모루키오

replicate famous artworks — works by Klimt and van Gogh are common. She says one of the difficult skills to master is cutting and shaping the glass. “Professionals will develop the skills to not leave spaces in between pieces. But many students have not yet learned this skill, and as a result there is a big loss of material,” she says.

Richey agrees: “It takes a lot of practice to cut the small pieces of smalti and stone into precise shapes. The opportunity to learn from Maestra Antonella is invaluable to getting the proper form and skill.”

Gallenda is especially skilled at micro-mosaics, or *filati*. She melts a piece of glass using a blowtorch before pulling long, spaghetti-sized strands of glass, which are then broken into small pieces and used to make exceptionally detailed mosaic works. She has also mastered the art of depicting human hands in mosaics. Ultimately, the finished works are the most powerful testament to both the craftsmanship of the artists and the quality of Orsoni’s ethereal glass. 📷 By Philippe Doré Photographs by Carlo Morucchio



안토넬라 갈렌다가 초상화법 수업 시간에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갈렌다는 마이크로 모자이크와 전문가 과정을 맡고 있다(왼쪽 페이지). 오르소니 모사이치의 교실 벽을 빼곡히 장식한 모자이크 유리 타일 공예 작품들(왼쪽, 아래).

Antonella Gallenda provides instruction to a student in the portraiture class, which is offered alongside micro-mosaics and master classes (opposite). Framed works of mosaics decorate the walls of the classroom and other spaces within Orsoni Mosaici (left, below).

